

01 교회소식

사명감으로 뜨거워지다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아 WCDN '2016 스페인 콘퍼런스' 조직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큰 은혜를 받았다.

02 생명의 말씀

희락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시리즈 설교. 범사에 성령의 소욕을 좇으며 기쁨과 감사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03 기획특집

용서의 차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자녀가 될 수 있다.

04 간증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이 행복!”

지성전 영혼들을 섬기며 영적 사랑을 배워가는 이재석 집사와 발바닥사마귀 치료로 하나님 사랑을 깨우친 하진 자매의 간증.

만민뉴스

제709호 2015년 10월 2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영혼 구원하는 WCDN 사역,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관계자들



만민의 사역을 체험하고자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행사에 참석한 WCDN 관계자들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만남을 가졌으며, 교회 내 무안단물수족관을 둘러보았다(사진 2,4,5,6). 또한 GCN 방송과 무안단물터를 방문해 침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다(사진 7,8). 올해 WCDN 관계자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제12회 WCDN 콘퍼런스'를 개최했으며, 조직위원장이 이사장 이재록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채윤석 박사가 대신 받았다(사진 1,3).

죄악으로 관영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는 오늘날 지식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2004년에 각종 의학 자료를 통하여 기사와 표적,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입증하는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을 설립하였다.

이후 WCDN은 매년 기독교인들이 모여 세계 각처에서 '영성과 의학'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전 세계에 19개 지부를 두고 왕성한 활동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 10월 8일(목),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미국, 스페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WCDN 관계자 15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10월 9일(금) 창립 전야예배 및 11일(주일) 창립 33주년 기념예배와 축하공연에 참석하였다.

말레이시아 다니엘 투라이아과 박사(가정의학 전문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교회임을 느꼈다. 공연이 아름답고 조직적이었으며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만민은 방송과 출판을 통해 국제적인

사역을 하고 있으며, 잘 훈련되어 교회를 섬기는 젊은이들이 크리스천들에게 도전을 준다.”라고 하였다.

미국 샤론 사토코 아야베 박사(가정의학 전문의)는 “이재록 박사의 기도로 치료받기를 사모해 파키스씨 병을 앓는 언니와 형부, 아버지도 함께 왔다. 이재록 박사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만민찬양을 통해 천국의 평안과 행복,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세계에서 최고라는 디즈니랜드 공연을 본 적이 있지만 만민에서 본 것과 비교도 안 된다. 만민의 공연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 드리는 것이며 마음 안에 기쁨이 샘솟게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주일 저녁예배 후 WCDN 설립자이며 이사장인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환담을 나누고 각자의 기도제목을 위해 기도를 받았다. 이 목사는 마지막 때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WCDN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소개하였고, 앞으로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다니엘 투라이아과 박사는 이날 우측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아내를 위해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았는데, 그 뒤 아내와의 전화 통화로 통증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된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10월 12일(월)에는 전남 무안군 해제면 무안단물터를 방문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 무안단물터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성경상의 역사처럼(출 15:25), 무안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짠물이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단물로 변한 권능의 현장이다.

한편, WCDN 관계자들의 이번 방문은 WCDN 사역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더해 주었다. 스페인 이시드로 마르띠네즈 바에스데르 씨(의학컨설턴트)는 “온 힘과 정성, 지혜 모든 것을 다해 복음 전파하기를 힘써 노력하는 만민중앙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더욱 충만해졌고 WCDN 사역에 자부심을 갖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엔라세 방송에서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시청하며 은혜받던 장모와 지인인 알만도 피네다 박사(WCDN 미국 디렉터)를 통하여 WCDN 사역에 대해 듣고 올해 제12회 말레이시아 국제기독교학 콘퍼런스에 참석한 뒤 WCDN 사역에 확신을 얻었다.

‘2016 WCDN 스페인 콘퍼런스’ 조직위원장 후안 까를로스 솔라노 박사(구강외과 전문의)는 “유럽에 기독교가 무너지고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이 광장히 안타까웠는데 이재록 박사의 사역을 보면서 내년 콘퍼런스가 유럽의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치료의 역사를 베푸시는 이재록 박사가 존경스럽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WCDN 선교가 매우 중요함을 느꼈고,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한다는 것이 너무 기뻐다. 내년 콘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비전으로 충만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장차 WCDN을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를 기대해 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희락의 열매

‘희락의 열매’는 자신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즐겁고 행복하게 주의 길을 가는 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기쁨이나 감사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맡은 일을 무덤덤하게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내 평안함을 잃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요. 혹여 힘든 일이 생길 때에도 마음 중심에서 기뻐하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은혜만으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지옥불에서 건짐받아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실만으로도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처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첫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아무리 고된 일로 몸이 지칠 때라도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거나 애매히 어려움을 당해도 천국을 생각하면 행복하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첫사랑의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도 예전과 같은 감격이 밀려오지 않지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한숨과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변하는 것일까요? 바로 마음에 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의 대표적인 특징은 ‘변질되는 것’이지요. 욕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기쁨이 넘치다가도 어느 순간 변질되어 기쁨이 사라집니다.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으므로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욕이 있는 만큼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못하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늘어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만사형통하며 축복이 넘칠 텐데 욕심과 조급함, 욕신의 생각으로 어려움이 생기지요. 우리 마음에서 욕을 벗을수록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임하며 범사에 형통함을 받게 됩니다.

2) 범사에 성령의 소욕을 좇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곧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실 때야 기쁨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예전과 달리 진리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행복하고 감사하지요.

우리는 삶 속에서 성령의 소욕을 좇을 수도 있고 욕신의 소욕을 좇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소욕을 좇으면 성령이 기뻐하시므로 우리 안에 기쁨이 채워집니다. 요한 삼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하였지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서로 계속 싸울 때에는 충만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욕을 좇아 자기 유익을 구하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영적인 기쁨은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답답하고 뭉가 꺼림칙하지요. 반면에 상대의 유익을 구하면 욕으로는 내가 손해를 본 것처럼 보여도 성령이 기뻐하시므로 위로부터 기쁨이 임합니다. 이런 기쁨은 누려 본 사람만이 알지요.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행복입니다.

범사에 마찬가지로 전에는 자기 기준에 맞춰 상대를 판단하던 사람이 마음을 바꿔 선으로 생각하는 만큼 평안해집니다. 또 성격이나 의견이 잘 안 맞는 사람에게도 먼저 웃어 주며, 상대를 편안케 하고자 나

를 죽일 때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와 성격이 안 맞는다’거나 ‘상대가 싫다’는 느낌조차 없으면 매순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지요.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좇으면 영적인 기쁨이 더해질 뿐 아니라 마음도 진리로 점점 변화됩니다. 그럴수록 희락의 열매가 실하게 영글어가고 얼굴에는 영적인 빛이 임하게 되지요.

3) 기쁨과 감사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두려면 씨앗을 심고 거두는 수고가 따릅니다. 이처럼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울려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진리 안에 사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주일 성수와 십일조만 온전히 해도 일 년 내내 사고나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 주시지요. 범 죄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며 충성하는 분들에게는 축복이 넘쳐납니다.

설령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 성경 말씀 안에 있으니 감사하지요. 만일 잘못된 것이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이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다면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 됩니다(요일 3:21~22).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지요.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점점 감사와 기쁨이 커지고 마침내 희락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희락의 열매를 맺어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영을 낳으며 성령의 소욕을 좇는 만큼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좇아 행하는 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열매인 희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희락의 열매

‘희락’의 사전적인 의미는 문자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마음에 맺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디. 바로 희락의 영적인 의미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2. 희락의 열매를 맺으려면

1) 비진리인 욕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시기, 질투라는 욕의 속성이 없으면 상대가 축복받고 칭찬받는 것을 볼 때 자신의 일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상대가 잘될 때 불편해지며 자신은 낮아지는 것 같아 기쁨을 잃고 낙심하거나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마음에 ‘헐기나’ ‘서운함’이라는 욕이 없으면 무례한 일을 당하거나 해를 입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욕이 있으면 서운해하고 속상해하며 그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횡송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4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자녀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253-985877 (예금주 이경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용서'

예수님께서서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마 18:22).
 마태복음 5장 23~24절에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지 점검해 봄으로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끝이 없는 긍휼과 용서

성경을 상고해 보면 '과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끝은 어디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랑의 깊이가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18장 7-8절에 보면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 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아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아키겠고” 말씀하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40일 후에 망하리라 했던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 백성이라 해도 왕 이하 온 신하와 백성, 짐승까지 재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회개할 때 긍휼로 용서해 주셨다(욘 3장).

또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을 하니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도 생명이 연장되었고(왕하 20장), 그 아들 므낫세도 포로로 잡혀 갔

으나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다시 왕이 될 수 있었다(대하 33:10-13).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비유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모진 고난과 십자가 처형을 받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아무 것도 드시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용서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나오는 사랑, 곧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깊은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버림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살리고자 하시며, 어찌하든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벧후 3:9).

마음에 임한 선(善)의 정도에 따라 다른 용서의 차원

용서에도 그 차원에 따라 단계가 다르다.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속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진정한 용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용서의 차원을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때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 바란다.

① 마지못해 용서하는 경우

마음에서는 전혀 용서하고 싶지 않고 여전히 감정과 미움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 척하는 것이다. 상대가 자신보다 뒷사람이거나 자신이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일 때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용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와 반대인 경우에는 굳이 감정을 눌러 참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쉽게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상대에 따라 마지못해 용서하는 경우는 용서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진리대로 행하고자 용서하는 경우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리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은 알기에 그나마 용서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결국 마음에서부터 용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아직 마음이 선으로 일궈져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한계 안에서만 용서할 수 있다. 그 한계를 넘어갈 때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감정을 드러내게 된다.

③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는 경우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하거나 머리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상대를 용서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이렇게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그 이상의 것을 주지는 못한다.

한 예로,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큰 해를 입혔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용서해 주었다. 물론 나쁜 감정도 갖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한 것이다. 그런데 상대가 얽치않게도 더 도와달라고 하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더 깊은 용서의 차원에 들어가면 이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④ 마음에서부터 용서할 뿐 아니라, 한없는 긍휼로 그 이상을 베푸는 경우

골로새서 3장 13-14절에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신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었으면서도 그 위에 사랑을 더해 상대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다. 혹여 상대가 먼저 도움을 요구해도 성령이 막으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고 또 주게 된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조금의 불편함이나 상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같은 것이 전혀 없다. 오직 상대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무조건 용서하는 것만이 선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상대가 거듭거듭 용서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변화의 노력 없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을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5.10.25~10.31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만민의 역사 1 ■ 선
- 3차 영혼육 4-8 ■ 천국 37-41
- 믿음의 분량 14-20
- 창세기 강해 36-40
- 요한계시록 강해 75-80
- 성령의 9가지 열매 5-9
- 나를 사랑하는 자들

GCN TV설교

- 팔복 4 (이수진 목사)
- 축복 (이희선 목사)
- 율기 강해 13 (신동초 목사)
- 열재앙 8 (정구영 목사)
- 성령의 9가지 열매 7 (김수정 목사)
- 에베소 교회 (김승신 전도사)
- 변함없는 사랑 (천우진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45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1
- 창조와 과학 16 ■ English 1
- 내 마음의 찬양 20 ■ 옛날 옛적에 6
- 모두 드려요 37 ■ 즐거운 요리 18

해외성회 및 교육

- 페루 연합대성회 3
- 믿음으로 걸어온 길 13
- 회상 [시즌2] 5

GCN TV 채널
kt olleh tv 882번

“지성전을 섬기며 샘솟는 사랑, 참 행복합니다!”

이재석 집사 (47세, 3대대 26교구)



▲ 사랑하는 아내 이성에 집사와 큰딸 아름(좌), 작은딸 솔비(우), 늦둥이 나린이를 안고 있는 이재석 집사.

행복이란 것을 얻기 위해 스물네 살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와 부도 누려 보았지만 제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고 급기야 술과 여자, 도박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업터에 어려움이 닥쳐 2003년 11월, 수십억에 이르는 부도를 내고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요.

저를 부러워하며 저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던 주위 사람들의 배신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시간이 지나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제 마음에는 절망이 자리 잡아갔고 가족과 연락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큰 아이는 할머니 댁에, 작은 아이는 사촌 처형 집에 맡겨졌고, 1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은 아내는 배신감으로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10월, 이혼 판결을 눈앞에 두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아내가 대학 선배의 전도를 받아 만민중앙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아내는 마음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이혼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미움과 증오에서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것이지요.

그해 12월 초, 어렵게 제 연락처를 알아낸 아내는 “이유는 묻지 말고 한 번만 내 말을 들어 달라.”며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아내의 부탁은 다름 아닌 교회에 함께 다니자는 것이었지요. 미안한 마음에 저는 교회에 나가 등록하였고, 아내의 말대로 당회장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듣고 다니엘철

야 기도회와 각종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얼마 후 주님의 은혜로 과거의 잘못을 눈물로 통회자복 할 수 있었지요.

세상 근심을 잊고 신앙에 마음을 다하고 있을 때 재기의 길이 열렸습니다. 투자자가 나타나 그동안 방치됐던 목포의 오피스텔 현장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푼 꿈을 안고 목포에 내려간 저에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도난 당좌수표를 공사 마무리까지 기다려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거래처의 고발로 허무하게 구속된 것입니다. 8개월간의 교도소 생활은 육체적으로는 고달팠지만, 성경과 당회장님의 신앙서적들을 읽고 기도하며 인생의 참 행복은 제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우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새사람이 되어 일일노동자로 일할지라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던 중, 2007년 3월 의정부 지성전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저와 아내는 주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다시 태

어나도 부부의 연을 맺기를 소원할 만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이처럼 차량국 직원이 된 후, 꿈에서 제 천국 집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본 성은 참으로 웅장했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 성에는 어떤 장식도 꾸며져 있지 않았고 성의 빼대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업무 시간 외에도 분야분야 더 마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반찬나누기로 시작하였는데 심방 차량운행을 하면서 각 가정의 형편을 많이 알게 되니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물론 제 도움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님들이 보일려가 고장이 나도,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해도, 가족이 쓰러져도 무엇이든지 아무 때나 편안하게 연락을 하시지요. 이런 세계 시정 담당 공무원은 사회복지사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는 많은 성도님이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돕고 구제하기에 힘쓰며, 혹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업어서라도 교회에 모시고 오는 사랑의 지성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부교구장님부터 대대교구장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영적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영혼들이 행복하게 정착하여 지성전이 부흥하고 있지요.

저희 가정은 아내와 자녀들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주의 일에 힘쓰는 화평한 가정이 되었고, 저의 변화에 어머니와 일가친척들이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만나 주시고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냉동치료로 못고친 발바닥사마귀를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하진 자매 (30세, 일본 동경타바타만민교회)



2010년 7월, 왼쪽 발바닥에 사마귀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걸을 때마다 불편하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난치성 질환으로 발바닥사마귀는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치료가 쉽지 않아 냉동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 겨울, 3개월간 사마귀를 완전히 냉각시키는 냉동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심한 통증으로 며칠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자다가 아파서 깨기도 하였지요. 또 이 질병이 전염성이 있어서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GCN 생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으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틈틈이 약을 바르고 2014년에는 다시 냉동치료를 6개월가량 받았지만 오히려 사마귀가 하나 더 늘었지요.

2015년 봄, 저는 변화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의 유희와 쾌락에 빠져 간신히 주일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후 세상 것을 끊어가며 나름대로 조금씩이라도 기도하려고 노력하였지요. 그런데 그 사이 사마귀가 오른쪽 발까지 번졌고, 저는 세상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 약을 버리고 무안단물을 발랐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깨우친 것입니다.

이후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잊고 살았는데 지난 6월, 발바닥사마귀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칩니다. 치료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병원 냉동요법으로도 치료되지 않던 발바닥사마귀가 믿음으로 기도받은 뒤 깨끗해졌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밭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면 해례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덕산로 22, 안생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